광주를 빛낸 시민 찾습니다

광주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봉사·학술·문화예술 등 5개 부문
3월2일~4월10일 접수

광주시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도 제37회 광주광역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제37회를 맞는 시민대상은 광주시민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의 명예 선양과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한다.

시민대상 후보자는 공고일(2월 20일) 기준 3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다.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적 공개와 자격요건 검증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오는 5월 제58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특히 공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적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면밀히 재검증할 계획이다. 공적 사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에서 제한을 받는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은 4월 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요건과 추천서 제출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역발전에 공헌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 발굴을 위해 귀감이 되는 이웃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추천은 '광주ON' 홈페이지에서 30표 이상의 공감을 받는 경우 예비 후보자로 선정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후보자로 추천된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귀감이 되는 이웃을 적극 추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대상 수상자로 개인 157명, 단체 8곳 등 총 165명을 배출했다. 수상자들은 명예의 전당 헌액, 각종 주요 행사의 초청인사 등으로 예우를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재난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

덕남 정수장 단수 사고 계기
재난사고 41개 매뉴얼 전수점검

광주시가 덕남 정수장 밸브 고장에 따른 대규모 단수 사고를 계기로 재난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대응 매뉴얼 41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훈련으로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점검과 훈련으로 모든 공직자가 매뉴얼을 숙달해 재난현장에서의 매뉴얼 작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상수도 정수장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동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41개 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전수 점검·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재난·사고 수습부서 자체점검을 통해 ▲기관별 임무 및 역할의 연계체계 ▲협업기능별 임무 적정성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며,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매뉴얼 개선사항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또 매뉴얼 행동절차의 확실한 숙지를 위해 매뉴얼 주관부서 담당자 대상 자체교육과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가스 폭발, 건축물 붕괴, 풍수해, 지진, 산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유형에 대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 상황 판단회의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 작동상태를 중점 모니터링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이와 함께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담당부서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재난 대응 프로세스와 비상연락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에 재난 매뉴얼 게시판을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교육 및 관리실태를 불시 감찰하고, 재난관리 미흡 실태 제보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관리기관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실제 재난 사고에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매뉴얼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 공직자의 재난 대응역량 향상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도시공사
시민 경영참여 확대
청렴시민감사관 9명 위촉

광주도시공사는 "공사의 청렴과 시민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세무사, 건설 전문가 등 공개모집을 통해 9명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광주지역 주요 기관들과 정기적인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활동결과는 백서 발간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각종 시민 불편 사항 제안 등 내부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겠다"며 "보다 청렴한 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131억원 투입 농업생산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농로 확포장

광주시는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수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131억원(국비 102억원, 시비 29억원)을 투입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5억원) ▲연산지구 배수개선사업(3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60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2억원) ▲농업용수 개발사업(2억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18억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2억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2억원)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업가뭄에 대비해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원을 5개 자치구와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 우선 배정한다.

또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7억원을 교부받아 2021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된 연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되거나 파손돼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저수지, 용·배수로, 농로 등)을 정비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89억원(국비 60억원, 시비 29억원)을 투입한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업생산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후 변화에 따른 영농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시비를 확보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경영·서비스 평가 '전국 1위'

국토부 전국 16개 도시철도 평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철도·도시철도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전국 16개 철도·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전국 평균인 88.03점을 크게 앞지르는 종합점수 91.48점을 받았으며, 특히 서비스 평가부문에서 월등하게 앞선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그동안 남광주역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각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 온 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특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시민 편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하철역을 세대공감 핫플레이스로 전환하고, 드론, IoT 등 신기술 활용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선진화로 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4년 연속 우수등급,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달성하기도 했다.

공사는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스마트팜 조성, 해외·국내 철도사업 수주, 대중교통 연계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편의 강화를 위한 그린교통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영개선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더 큰 시민 행복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체험관 운영 재개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체험관을 3월 1일부터 재개한다.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체험관은 CCTV와 관련한 체험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영상체험관에서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 이해하기 ▲관제상황실 관람 ▲비상벨 작동법 ▲우리 동네 CCTV(감시카메라) 찾기 등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바로예약)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일 하루 3회(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4시) 4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당 5~15명 이내로 운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자치경찰 빛고을자전거순찰대원 모집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이 지역 안전지킴이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제2기 대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며 서류 심사를 거쳐 60명을 선발한다. 자전거를 보유한 만19세 이상의 광주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순찰대원은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광주천변 등 자전거 전용도로와 도심 공원·골목길 등에서 자전거 취미활동 중 발견한 노후·파손된 방범 시설물 등을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네이버 밴드에 공유해 개선을 요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는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대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한다. 우수 대원에게는 자치경찰위원장 및 광주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